진정한 성불의 길, 출가자의 목적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㉒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2

수보리가 기원정사의 사리불을 스승으로 하여 출가하자 급고독(수잣타)장자는 집안의 경사라며 무척 좋아했다. 코살라국에서 출가한 유일한 인물이 자기 조카이니 그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다. 매일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나면 조카스님을 보고 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는데 정작 수보리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웠다.

공부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을 집중할 수도 없고 원망이 쌓여갔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가 진전이 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상담하게 되니 바로 〈금강경〉의 시작이다.

탱화와 벽화 속에 등장하는 수보리는 언제나 나이가 많은 장로의 모습만 보다가 일본 나라의 흥복사(興福寺) 국보관에 덴표시대(天平, 729~749)를 대표하는 십대제자 조각상들 속에서 수보리와 마주친 나는 감동으로 울 뻔 했다. 출가해서 6~7년쯤 된 〈금강경〉속에 등장하는 수보리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발심해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하고,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흔들리는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아야만 할까요?"(應云何住 云何修行 云何降伏其心, 魏譯本)

당시 수보리의 마음을 헤아려보기 딱 알맞은 질문이었다. 수보리가 처음 소승의 수행경지에서 철저한 자각의 마음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머물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이 자신을 갈아먹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불의 길이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자리이타의 본질, 일체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출가자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금강경〉은 수보리를 대승보살의 경지로 입문케 하는 경전이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개인의 삶의 문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금강경〉에선 우리들에게 한결 같이 의심을 끊고 그 자리에서 신심을 내는 것으로 길을 찾아 가도록 이끈다. 확고한 신심과 믿음이 없다면 중생은 보살이 될 수 없고 부처도 될 수 없다. 신심의 반대가 의심이니 이 의심은 도에 나아가는 마음을 장애한다.

누구나 청정한 수행을 하면 반드시 드는 이 의심에 셋이 있으니 사람을 의심하고, 부처님 법을 의심하고,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 수보리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다. 수보리는 급고독장자를 의심하고, 깨침의 세계가 광대한 것에 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근기가 낮은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흔들렸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금강같은 가르침으로 일시에 고민을 해결케 하셨다. 재물로 마음이 상했던 과거의 흔적과 상처가 현재의 삶을 장애하는 수보리에게 부처님의 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종류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비유상 비무상들을 나는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고자 한다. 보살은 이처럼 한량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모두 인도하여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며, 중생을 인도했다는 생각도 내려 놓아야 한다. 왜냐면 수보리야 보살이 중생을 이끌면서 아상(교만심), 인상(우월감), 중생상(열등감), 수자상(애착과 집착심)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은 집착없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해야하며 모양, 소리, 향기, 맛, 감촉, 일체법까지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만이 공덕이 가장 수승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보살이라면 마땅이 부처님가르침대로 안주하면 된다."

재물에 관한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젊은 수보리에게 부처님의 답변은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는 집착하는 마음없이 말법으로써 중생에게 보시하거라."

우리는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인 〈금강경〉에서 펼쳐지는 철학적인 언어의 집착은 잊고, 보살의 삶을 위하여 해야 할 수행과 번뇌를 다스리는 법이 바로 차별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무주상 법보시의 바라밀행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서울 반야사 주지〉

불가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와 금강반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㉑ 금강반야의 세계

금강경 교육은 최상의 교육, 금강반야를 얻은 보살은 불교에 집착하지 않는다. 불교와 유교,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를 마음 닦아 밝아지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마음 닦아 탐진치를 소멸하면 부처님처럼 본연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할까요?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금강경 13분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분의 핵심 내용인 금강반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뜻과 차이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금강경 13분은 수보리 존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가르침의 핵심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공부할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경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생사를 해탈하는 진리로 알고 공부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시(爾時) 수보리백불언(須菩提白佛言), 그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世尊) 당하명차경(當何名此經) 부처님이시어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아등(我等) 운하봉지(云何奉持)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겠습니까?

불고 수보리(佛告 須菩提)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시경(是經) 명위금강반야바라밀(名爲金剛般若波羅蜜)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며

이시명자(以是名字) 여당봉지(汝當奉持). 그 이름으로 그대들은 받들어 가지어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음 밖의 것을 찾아 헤매지 말라. 마음 밖의 세계는 그대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란 참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이다."

13분에서는 현실세계가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이것이 지혜 중 최고의 지혜 즉 금강반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경(是經)은 명위 금강반야바라밀(名爲金剛般若波羅蜜)이라는 말씀 중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중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금강반야란 가장 단단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중에는 단단한 지혜도 있고, 단단하지 않은 지혜도 있는가 봅니다.

지혜라는 참뜻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단한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란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해결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혜라면 이런 지혜는 단단한 지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지혜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면, 이것이야말로 더욱 단단한 지혜일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오음성고(五陰盛苦)와 '이 뭣고'

〈능엄경〉에 보면 "육문(六門)을 연마해 식음(識陰)(제8아뢰야식)의 마(魔)를 소멸하고 합해 열림을 성취하면, 견(見)과 문(聞)이 한데로 통해 이웃하고 서로 활용함이 청정하며, 시방세계와 심신이 훤히 밝아지니, 이것은 식음이 다함이다. 이 사람은 능히 명탁(命濁)을 초월함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이는 오온을 '이 뭣고'로 비춰 봄으로써 아공(我空)이 되고, 사물의 실체 또한 공해서 경계의 끄달림서 벗어난 법공(法空)이 되어야, 오온이 공함을 깨닫고 모든 업장이 소멸돼 금생에 생사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사(大使) 황정연이 하루는 조심선사를 모시고 산행을 했는데, 산 목련이 곱게 피어 있었다. 조심선사가 "산 목련의 꽃향기를 듣는가?" 물으니 대사는 "듣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심선사가 "나는 숨기는 것이 없노라"고 말하자 대사는 즉시 절을 올리며, "화상께서 이렇게 노파심절 하실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니 선사가 웃으면서 "공(公)이 집에 이르렀구나"라고 하시며, 인가(認可) 하셨다. 위의 식음이 소멸되어 보는 견과 듣는 문이 하나로 통하여 귀로 향기를 듣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녹야원서 다섯 비구에게 설한 사성제는 우선 고제, 즉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거짓 나를 실체(實體)한다고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고(苦)인데, 사고(四苦)인 생노병사와 팔고(八苦)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과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 무엇이든 구(求) 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산물인 구

선가에서 고제는 한 생각 물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집제는 한생각 거듭 이어지는 것을, 멸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도제는 멸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다.

부득고(求不得古),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여 몸과 마음을 이룬 것인데,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이치(理致)를 깨치지 못하고 오온에 집착해 온갖 고통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苦)의 핵심이 오음성고(五陰盛苦)이다.

다음으로 집제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나 또는 나의 것이 실재 존재한다는 무지와 무명서 비롯된 아집(我執) 또는 망집(妄執)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며, 소승불교에서는 번뇌중에서 갈애(渴愛)와 집착(執着)을 핵심적인 고의 원인으로 본다. 세 번째로 멸제이다. 갈애(渴愛)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며, 애착, 번뇌의 속박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제이다. 이는 멸제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으로 8정도와 육바라밀로 선정(禪定)이 반야행인데, 반야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緣起) 무아(無我) 공(空)의 진리(眞理)를 밝게 깨쳐보는 지혜를 말하고, 그 반대가 무명이다.

선가에서 고제는 한 생각 물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집제는 한생각이 거듭 이어지는 것을, 멸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도제는 멸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다.

또한 진리는 인식 대상이 아니고 실천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그 실천 할 수 있는 여의보주(如意寶珠)가 '이 뭣고'이며, 시심마 이 뭣고의 이(是)속에는 진리를 비춰보는 반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온의 통속서 나와 '이 뭣고'로 비춤으로서 오온이 본래 공함을 깨닫게 되고, 반야지혜를 생활속에서 굴려 쓰게 된다. 진공(眞空)은 거울과 같아서 사물이 비춰지면 비칠 뿐 거기에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비춰지면 깨끗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남기 때문에 꿈속에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신화종합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 특A급 가격 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석탑 5 ~ 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탈종공고
• 사찰명 : 모선암
• 주 소 :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25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